

## 교양과 재미 두루 갖춘 '아우성' 이야기

레리 고닉의 《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섹스》를 읽고

이숙인 | 소설가

“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문화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매체는 결코 엄숙하고 어려워선 안되겠다는 게 평소 생각하고 보면, 이 만화책은 참으로 이 나라에 잘 들어온 번역서가 아닌가 싶다. 재치있는 필치와 경쾌한 터치로 그린 이 만화책은 그야말로 지식·교양·학습만화의 범주에 들 만한 자격을 고루 갖추고 있고, 오락성 역시 만만치 않다.”

언젠가 어느 선배가 술자리에서 “우리 사회 최후의 선악과가 두개 남아있는데, 바로 분단과 성. 곧 섹스에 관한 문제지”라고 말한 적이 있다. 이 책에 나온 표현대로 그 무렵 막 ‘헌신적이고 공식적인 성관계’를 정리했던 나로서는 그깟 섹스가 무슨 분단 문제와 비길 것인가 하고 실소했던 기억이 난다.

### ‘지뢰밭 투성이’인 우리의 성문화

하지만 역시 선배는 선배였다. 제도의 껍질을 찢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아름답고 자유로운 섹스의 세계가 눈앞에 확 펼쳐질 줄 알았던 나의 기대는 이내 파삭 깨지고 말았다.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볼 때 성에 관한 한 사방은 지뢰밭이고 부비트랩 투성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.

예를 들어 볼까. 《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섹스》(레리 고닉, 궁리)의 자료에 나온 대로 우리나라 남성이 부인 외 여성에게 성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무려 81.6%, 실제 경험자도 73.3%에 이른다고 하는데, 나는 여지껏 그런 남자의 추파를 구경도 하지 못했다(혹시 나의 성적 매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면 할말은 없지만 믿거나 말거나 나의 매력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바는 결코 아니다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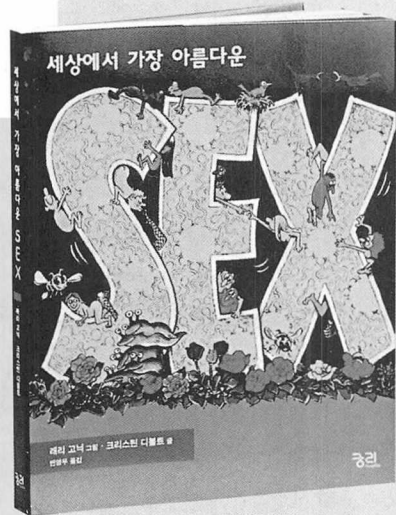
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. 이 나라 남자들은

그야말로 혼외 섹스의 충동을 거개가 그에 맞춘 한 여자들이 손뼉려 기다리는 업소 부흥에만 기형적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증빙이 아닐까. 거꾸로 혼외 섹스의 충동을 느끼는 여자들의 지형도는 대체 어디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걸까. 또 있다. 혼자가 됐거나 혼자 사는 여자들은 대개 성에 관해 한두가지 이상 불쾌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. 특히 자신의 사생활을 좀 나누면서 인간적으로 친밀해지려 할 때 남자들이 보이는 연민을 가장한 적극적 공세는 대부분 추악한 결말로 끝나기 일쑤다.

어느 여자 문인은, 그의 글에 표현된 성과 연루된 구절을 큰소리로 읊조리며 길 한복판에서 달려들던 웬 남자에게 봉변을 당한 적도 있다. 남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. 정확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제 여자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점잖은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찾는다는 고백도 다수 있는 걸 보면.

### 재치있는 필치와 경쾌한 터치의 만화책

우리 사회의 이런 이중적 성문화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매체는 결코 엄숙하고 어려워선 안되겠다는 게 평소 생각하고 보면 이 만화책은 참으로 이 나라에 잘 들어온 번역서가 아닌가 싶다. 재치있는 필치와 경쾌한 터치로 그려진 이 만화책은 그야말로 지식·교양·학습



변영우 옮김  
궁리/85변형/258면/8000원

만화의 범주에 들 만한 자격을 고루 갖추고 있다. 거기에 오락성 역시 만만치 않다. 자라나는 아이에게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라면 깜짝 선물로 스윙 책상 위에 올려줄 만하다. 너무 이른 것 아니냐고?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소위 ‘음란(실은 이 말도 참 웃기는 표현이지만) 사이트’에서 먼저 성을 알게 될 텐데?

이 책의 끝부분은 관점의 문제를 짚고 있다.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, 동성애를 설명하고 정의내리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인간적인지 등. 다행히 그 대목도 제법 단단하고 무난하다. 하지만 혼인제도에 대한 저자들의 본능에 가까운 우호적 태도, 한국 사례 통계 자료의 남성 편향성,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통계적 사실들이 그대로 제시된 것 등은 옥에 티라 할 수 있겠다. 물론 가장 아쉬운 점이 라면 진짜로 ‘섹시한’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조건과 사례 연구였지만, 그래서 아마 이 책은 후편을 기대하게 하는가 보다.●